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church

#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 제1회 장천포럼, 120인의 담론

4월 8일, 장천기념사업회 주최로 사회봉사관에서 열려

장천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제1회 장천포럼 이 2024년 4월 8일(월) 오후 2시에 광림 사회 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있었다.

지난 11월 장천 김선도 감독의 1주기를 맞아 발족한 장천기념사업회는 기념사업회의 존 재 목적을 단순히 누군가를 기억하고 기념하 는 차원을 넘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자 는 것에 두고 이번 포럼을 개최한 것이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 이 가지 않은 곳을 가며 목회와 선교, 국제구 호에 선구자가 되었던 김선도 감독의 뜻을 기 리며 그의 제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장천기념 사업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목 회자와 각 분야 전문가, 평신도 지도자를 초 청하였다.

예상했지만, 200여 명이 참석해 인재 양성, 교회와 국제구호, 북한 선교와 통일에 대해 기념사업회의 나아갈 방향을 토의하였다.

1부 예배는 권병훈 목사(상계광림교회)의 사 회로 드려졌으며, '시대의 선물'이라는 제목으 로 이철 감독회장(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설교, 김영헌 감독(은평교회 원로목사)의 축도로 이어졌다.

이어 박동찬 목사(장천기념사업회 회장, 일산 광림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2부 강의에서는 먼저, 정희수 감독(UMC GBGM 이사장)과 자비에르 비에라(Javier A. Viera) 총장(미 국 게렛신학교)의 축사가 있었으며 세 섹션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강의는 인재양성에 대한 것으로 전 이화여대 총장이자 통일미래로 대표인 장상 박사가 맡았다. 장상 박사는 인재 양성에 대 부제는 '120인의 담론'으로 120명의 참석을 │ 한 관심이 곧 한국교회의 사명이며 한국교회 의 미래를 밝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 별히 교회학교에 대한 관심과 교사 교육, 전 문적인 지식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인재양 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의는 김선도 감독이 이사장을 역 임한 월드비전의 조명환 회장이 맡았다. 먼 저 국제대회 유치, 사랑의 빵 캠페인 전개, 북 한 국수공장 설립 등 광림교회와 월드비전 과의 협력 사업을 소개하고 다양한 교회와 NGO단체의 협력 사업 프로젝트와 잠비아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자립마을 사업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선교와 통일 부분에서는 북 녘교회연구원 원장인 유관지 목사가 '통일선 교, 이런 일들을 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으며,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북한교 회의 회복을 위한 여러 제안을 발표했다.



··· 3면에 계속

광림의 강단 **스**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3
 광림 스토리

 감람동산 합동추모예배

하나님을 만나다 4 아나라들 한국국 나사렛성가대 부활절 음악 예배

다음세대 5 나눔세네 교회학교 블라썸데이

목회현장 택시전도데이 **용** 복음, 문화와 만나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니"(요 4:29)

과거의 잘못된 죄의 문제는 사람들로부터 두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는 과거를 그냥 체념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된 일, 어쩔 수 없다며 과거를 회피하 며 살아갑니다. 다른 하나는 그 과거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후회하며 사는 경우입 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 일만 없었다면 지금 나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하며 잘못된 선택을 한 자신 을 한심스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반응은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과거로부터 묶어두 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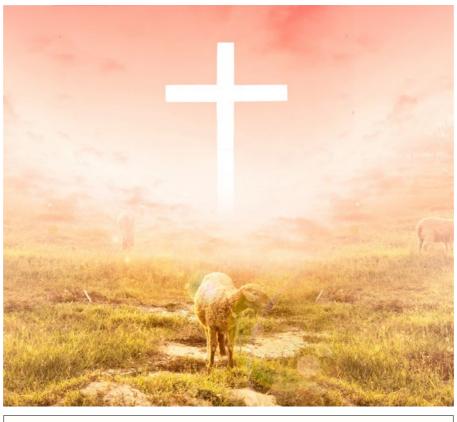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과거 의 잘못을 씻음 받고 영혼의 자유함을 얻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 의 마음을 만져주셨을 때, 참된 위로를 통해 서 상처와 아픔을 깨끗이 치유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 게 위로하셨고 또 그녀의 삶을 어떻게 변화 시키셨는지 살펴보며 우리 과거의 상처와 아 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영혼의 참된 자유 를 얻는 길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자 합니다.

#### 첫째, 예수님은 위기 속에 찾아오셔 서 위로해 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매우 불결 하고 부정한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 사 마리아를 통과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 데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소망을 잃고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지역을 지나가셨습니다.

여인은 인적이 드문 제6시쯤, 오늘날 시간으 로 낮 12시쯤에 물을 길러 갑니다. 그 시간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양빛을 피해 쉬거 나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는 우물가로 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셨습니다. 이 여인이 행실이 부도덕한 여인이 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남편에 게 버림을 받을 때마다 불안한 마음에 새로 운 사람을 찾으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사마 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과 거의 수치스러운 모습들까지 모두 드러내었 습니다. 그 때 여인은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예 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여인은 '이 사람은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 람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나의 과거를 속속들 이 알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제 이 여인에게는 수치스러운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된, 메시아를 만나게 된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를 들춰내신 이유 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여인의 과거를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과거를 용서해 주셨고 이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 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



#### 요한<del>복음</del> 4:3~30

3.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 라 22.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가실새 4.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야 하겠는지라 5.사마리아에 있 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이 가깝고 6.거기 또 야곱의 우 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 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 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7.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이는 제자들이 먹 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 음이러라 9.사마리아 여자가 이 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 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10.예수께서 대답 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 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 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 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11.여 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 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 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 이까 13.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 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 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 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되리라 15.여자가 이르되 주 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 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 지도 않게 하옵소서 16.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17.여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 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 다 18.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19.여자가 이르 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 다 20.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 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 이다 21.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 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 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서 남이라 23.아버지께 참되게 예 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 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 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하 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5.여 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 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 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 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26.예수 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27.이 때에 제자 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 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 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 가 없더라 28.여자가 물동이를 버 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 에게 이르되 29.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 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로 오더라

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과거의 슬픔과 아 픔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 하고 삶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그리스도 인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심령 을 회복시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 십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 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 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 다"(19~20절)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감격으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과거의 모든 삶의 문 | 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 | 혜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여

인에게 생각을 전환시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는 사마리아 산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며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하 다고 하십니다(23~24절). 예배는 장소가 중요 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열정이 사라지는 것은 마음 속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려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예배를 드려 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열 정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결한 마음 없이 가식적인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는 사 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 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 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 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사 59:1~2) 라고 이야기 합니다.

날마다 마음의 죄를 회개함으로 예배의 열정 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심 령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시거나 멸시 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회개로 예배의 열정 을 회복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 임받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 셋째,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치유하셔 서 자발적인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물동이를 바닥에 버 리고 동네에 들어가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29절)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은 수치스러 운 과거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과거의 상 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허물을 아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허물은 자신의 인생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 든 죄를 용서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죄 씻음 받았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 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모든 과거의 죄 가 치유될 때 아픈 과거는 오히려 전도의 도 구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 다. 세상에는 여전히 죄의 문제로 고통과 슬 픔 속에서 헤메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위로함을 받고 상처와 아픔을 치유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 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영상은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1면에 이어

강의 후에는 그룹별로 나눠 각 분야별 사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그룹별 발표와 최이우 목사(장천기념사업회 의견들을 잘 수렴하여 사업회의 구체적인 방 이사장, 종교교회 원로목사)의 총평 및 감사 인을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진행하겠

인사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최이우 목사는 장천기념사업회와 장천포럼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토론에서 나온 귀한 의견들을 잘 수렴하여 사업회의 구체적인 방 안을 설정하고 우선수위를 정하여 진행하겠

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하 였다

\*장천기념사업회 후원 관련 문의 : (02-2056-5732)

🙏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 포토 뉴스



**서울남연회** 제35회 서울남연회가 4월 4일~5일까지 임마누엘교회에서 개최되었다.



**남선교회 사랑의 쌀 나누기** 4월 7일(주일) 남선교회 주관 2024년도 제2회 사랑의 쌀 전달이 있었다.



**샤이닝 온타임** 4월 7일 ~ 12월 18일까지 온 가족이 함께 주일, 수요일 저녁예배에 참석하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 감람동산에서 합동추모예배 드려

천국 소망으로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통로





광림교회는 3월 30일(토)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에 위치한 감람동산에서 한식을 맞아 합동추모예배를 드렸다. 경조위원회(위원장 배경호 장로)주관으로 강촌광림교회에서열린 합동추모예배는 성금요일 성찬예배다음날, 부활절 전날에 드리게 되어 어느 때보다 영적인 의미가 깊었다.

합동추모예배는 본당과 남교회에서 참석한 유가족 3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특별 히 유족들이 도착할 때마다 강촌광림교회 전선옥 목사와 광림 노인전문요양원 홍종환 원장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유족들은 감람동산에 올라가 고인을 추모하 친지, 며 베다니홀에 조성된 디지털 명패(키오스 될 수 크)에서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옛 추억을 했다.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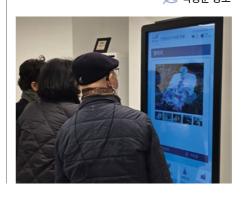
이날 조성한 목사는 히브리서 12장 1~2절의 말씀으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 활과 영생을 증거하는 증인 된 삶을 살아야 하며, 증인의 삶을 사는 경주자는 세상의 모 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선두에 서 서 믿음의 길을 개척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승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배경호 장로는 "광림교회는 한식인 봄과 추석이 있는 가을에 합동추모예배를 한 해 두번 드리고 있습니다. 경조위원회에서는 성도들의 장례를 통해 믿지 않는 직계가족이나 친지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계기가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다

감람동산은 세례받은 성도의 직계가족이 이용할 수 있고, 장례나 이장을 원하는 성도들은 교구 전도사나 경조위원회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경조위원회 조항장 권사 (010-5218-4453)

📩 박영준 장로



#### 담임목사 동정



| 4/4~5 | 서울남연회    |
|-------|----------|
|       | 목사안수식    |
| 4/8   | 제1회 장천포럼 |
| 4/13  | 월간회의     |
|       | 춘계산상기도회  |
|       |          |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 〈I AM〉 감동의 부활절 칸타타

나사렛성가대 부활절 음악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광림교회는 부활 주일을 기념하여 음악위원 회(위원장 장대진 장로)가 주최하고 나사렛성 가대와 오케스트라가 주관하는 부활절 음악 예배를 부활 주일인 지난 3월 31일, 오후 7시 30분 본당 대예배실에서 드렸다.

광림교회 주일 2부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나 사렛성가대는 대학생 성가대 '아가페'로 시작 해 1980년 10월 19일 현악부와 함께 주일 2 부 예배를 담당하는 나사렛성가대로 재창단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 부활절 음악 예배에서 120여 명의 나사 렛 성가대원과 40여 명의 오케스트라는 17 편의 성가곡이 수록된 〈I AM〉(David T. Clydesdale)을 편곡하여 총 15곡을 찬양하며 향연의 장을 펼쳤다. 〈I AM〉은 왕관 없이 오신 우리의 왕, 예수님이 호산나 높이 찬양받으셨으나 결국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기까지 과정을 찬양으로 표현한 칸타타이다.

나사렛성가대는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45분간 15곡을 쉼없이 찬양하였고, 앙코르곡인 할렐루야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과 벅찬 감동을 예배에참석한 모든 성도와 함께 나누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나사렛성가대의 은혜로 운 찬양과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귀한 부활절 음악 예배가 되 었다"라며, 수고한 나사렛성가대와 오케스트 라에 감사 인사를 전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나사렛성가대 대장인 이남용 장로는 "사랑하는 나사렛 성가대원들과 함께 곡을 선정하고 두 달간 연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는 목표로 쉼 없이 기도하며 부활절음악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헌신한 서진 지휘자와 나사렛 성가대원, 오케스트라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했다.

🖈 박희윤기자

### 광림미술인선교회〈2024 TOLLE LEGE 부활절 기념전〉

만개한 봄꽃들로 부활의 생명이 가득한 봄날, 2024 톨레레게 부활절 기념전이 3월 31일에 오픈하여 4월 21일까지 장천갤러리에서열리고 있다.

광림미술인선교회는 광림의 미술인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 선포와 신앙고백이 담긴 작품으로 문화 선교 적 사명을 감당해온 지 올해로 15년이 되었다. 미술인선교회는 상반기인 4월에 부활절 기념 전, 하반기인 11월에 추수감사절 기념을 겸 한 교회 창립 기념전으로 매년 두 번의 정기 전을 통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미술인선교회의 톨레레게전을 통하여 부활 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찬 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김혜령, 문지영, 민선홍, 박정, 변영혜, 안지아, 오순희, 이수자, 이숭희, 이시원, 임재식, 임현규, 조명애, 한은선, 홍림 총 15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린 톨레 레게 전시회가 광림의 교우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다.





1선교구

### 믿음의 그루터기로 부흥에 힘쓰는 남성속회



1선교구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러들었 던 남성속회 부흥을 위해 믿음의 그루터기들 이 모여 박범규 목사(1선교구) 인도로 속회 예배를 드렸다.

#### 부흥의 불씨 일어나는 1교구 51속, 52속 남성속회

지난 4월 4일(목) 안암법률사무소에서 1교구 51속, 52속 남성속회가 열렸다.

그동안 51속 속회는 조승현 권사(51속장)를 중심으로 양호길 집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김웅세 집사, 최해웅 성도, 최윤석 성도가 함께 코로나 기간에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 2024년에는 51속, 52속 2개의 속회로나뉘었으며, 대부분 30~40대 젊은 성도로 구성되어 있다.

속회에 처음 참여한 정병규 성도는 광림교회 집사(52속장)는 말했다.

새가족 교육 과정을 수료했고, 오민준 성도 는 청년부 예배를 드리다가 결혼 후 남성 속 회로 오게 되었다.

조승현 권사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속 회가 부흥하길 함께 기도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빠른 기도 응답에 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읽을 때는 모두 한목소리로 정확하고 조화로운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같아 은혜가 됩니다"라고 했다.

도더는 것같아 는에가 됩니다라고 했다. 또 "그동안 꾸준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 서 자리가 부족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많 은 분들이 오셔서 자리가 부족하네요. 사업 장을 확장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양호길 지사(52소자)는 마해다



####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 3교구 남성연합속회

3교구에서는 지난 3월 14일(목) 서대문에 위치한 정은기 장로 가정에서 남성연합속회를 가졌다. 하루의 바쁜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얼굴은 모두 밝은 모습이었다. 그만큼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속회에는 이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30, 40대의 성도들이 참석했고, 광림교회에 등록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 새신자도 있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교회학교 교사로 39년 동안 헌신한 박인수 권사(3교구장)가 서울남 연회에서 표창 받은 것을 축하하고, 주의 일 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수고와 헌 신에 대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범규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 축복'(눅 1:5~2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만이 갖는 특권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에게는 기회가 주어진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도울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에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가장이 될 때, 가정의 평화와 화목이 지켜진다"라고 했다.

3교구 남성 교우들은 이번 연합속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장이요, 아버지요, 형제가 되어가기 위한 시작을 열었다. 올 한 해 직장과가정 안에서 기도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기도하고 있다.



### 하나님 나라 위해 선교 준비하는 청년부

〈2024년 청년선교국 해외단기선교〉 7월 15일 ~ 8월 24일까지 진행







광림교회 청년부는 이번 7월과 8월 해외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해외선교 팀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3개 나라를 위한 단기선교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태국 선 교는 7월 3주차 기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 다. 필리핀과 베트남 선교는 8월 2~3주차 기 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 태국

태국 제2의 도시인 치앙마이에서 차를 타고 약 7시간 정도 이동하면 소수 원주민들이 사는 포푸라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광림 교회 청년들의 헌신과 현지 성도들의 노력으로 세워진 루엄타이교회가 있습니다.

이번 태국 단기선교팀은 루엄타이 교회를 중 심으로 고산 지역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 고 현지 원주민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성경 학교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 필리핀

필리핀 단기선교팀은 아이타 민족과 필리피노 민족을 위해 세워진 8개의 현지교회를 방문하여 선교할 예정이며, 산속에 살면서 구황작물만 먹는 아이타 소수민족 성도들에게음식을 대접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은 현지 8개 교회의 학생들이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워십, 수 화, 파아노 등을 가르치는 아카데미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베트남

베트남 선교팀은 호치민시에 있는 베트남 광 림미션센터와 협력하여 문화사역 및 예배사 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베트남 광림미션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아원인 푹탕보육원을 방 문하여 달란트 잔치와 레크리에이션, 성극과 워십 등 문화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과 사 랑을 전할 예정입니다.

청년부 해외선교팀 이윤경 팀장은 "청년부 해 외단기선교는 사명자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 선교사님들의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청년들이 이 시간을 통해 신앙이 깊어지고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길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지로 떠나게 될 광림의 청년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 블라썸데이, 다음세대에 피는 꽃

4월 7일 ~ 28일, 교회학교 4월 총력전도주일

완연한 봄날입니다. 목련이 피고, 벚꽃이 피고, 가지마다 움이 돋는 계절입니다.

겨우내 앙상했던 가지에서 움이 돋고 꽃이 핀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 습니다. 그래서 봄은 생명의 계절입니다.

생명의 계절 봄을 맞아 교회학교에서는 새생명 축제 '블라썸데이'를 준비하였습니다. 블라썸데이는 꽃이 피는 날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 날을 통해 두 종류의 아름다운 꽃이 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꽃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가정에서 피는 '기쁨의 꽃'입니다. 4월은 광림교회 총력전도의 달입니다. 이 기간 온 가정이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하나가 되어 전도의 기쁨을 맛보고, 신앙생활이 주는 감격과감사를 다시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꽃은 생명의 소식을 알지 못했던 새 친구들에게서 피는 생명의 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총력전도를 통해 복음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복음이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기를 원합니다. 그 렇게 그들의 얼굴에 환한 꽃이 피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기도 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학생들이 있다면 교 회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친지 중에 학생들이 있다면 꼭 교회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는 성서적이고 활동적이 고, 영적이고, 유익하고, 공동체적인 시간들 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계절 봄, 이 계절이 다음세대의 얼굴에 꽃이 만개하는 블라썸데이가 되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임재철 목사(교회학교)



### 복음의 능력이 온 땅에

청장년부, 잠비아 광림미션센터와 선교협약 맺어



지난 4월 7일(주일) 청장년부(위원장 신범식 장로)는 총력전도의 달을 맞이하여 최성령 선교사(잠비아 광림미션센터)를 강사로 토 크콘서트와 전도 특강, 지속적인 선교를 위 한 선교협약식을 진행했다.

광림교회는 지난 2023년 5월 28일(주일) 교회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최성령 선교사를 파송(2020년 11월)한지 3년 만에 잠비아 땅에 아프리카 선교 허브의 역할을 감당할 미션센터와 현지인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건립했다.

잠비아 광림미션센터는 광림교회가 아프리카 대륙에 세운 첫 번째 미션센터로 美웨슬리신학교와 英옥스포드선교대학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현지인 목회자 양성을 위한 잠비아 광림신학교와 초등교육을 위한 루사카광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최성령 선교사는 전도 특강을 통해 잠비아

미션센터와 청장년부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환경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동일하며, 전도와선교는 하나임을 말했다. 특별히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발생했던 문제들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대응하였던 경험을 간증하였다. 한국인 선교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현지인들을 대하였을 때, 복잡했던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었던 경험을 전하며청장년부 공동체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함께 나누고 도전을 심어주었다.

특강에 이어서 진행한 선교협약식에서는 잠비아 광림미션센터의 최성령 선교사와 청장년공동체를 대표하여 신범식 장로가 지속적인 선교를 위한 선교협약을 맺었다. 잠비아광림신학교를 통해 훈련받은 현지인 목회자가 1호 교회를 설립할 때 이를 지원하며, 잠비아 광림신학교와 루사카 광림학교의 제반활동과 관련된 일에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현재 잠비아 광림미션센터는 지난 2023년 봉헌 이후 시작한 잠비아 광림신학교와 루 사카 광림학교(초등학교)에 잠비아 정부의 공식 허가와 인증을 기다리고 있으며, 다양 한 선교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 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 황지수 목사(청장년부)

#### 목회현장

### "저는 다 괜찮습니다"



GOD라는 그룹의 '어머님께'라는 노래에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라는 잘 알려진 가

사가 있다.

이 가사는 가난한 삶 짜장면 한 젓가락이라 도 더 먹이려는 어머니 마음의 표현이었다. 우리는 서슴없이 거짓을 말한다. 세상의 거 짓에는 흉계와 계략이 담겨 있지만 부모의 거 짓에는 진심과 사랑이 담겨 있다.

심방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내민기도 카드에는 '나'는 온데간데없다. 하나같이 남편,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 손녀이들의 긴급한 사안과 앞날을 위해 하나님이언제나 함께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간곡한 기도가 담겨 있다. 아니 어떤 때는 기도 카드가 없다. 기도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다. 그런데 그 많은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으며 담아낸 기도의 제목 안에도 '나'는 없다.

그래서 여쭈었다. "오늘 심방 받을 주인공은 권사님이신데 주인공의 기도 제목이 없으시 네요. 권사님 기도 제목 주세요!" 그러면 하 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내 기도 제목이 에요. 저는 특별한 거 없어요. 다 괜찮아요."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은 "저는 이제 앞 으로 한 10년만 딱 살다가 갈 겁니다."

그런데 진실은 정반대다. 정말 괜찮지 않다. 온몸 여기저기를 이놈 저놈이라 하신다. 팔, 다리, 허리, 어깨, 목들이 저마다 통증을 호 소하며 함께 해온 세월에 온몸을 이렇게 표 현하는 거다. 그 안에는 수술과 병력, 그리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살아온 모진 세월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먹는 약도 거짓을 조금 보태어 이미 처방받아 드시는 약으로 한 끼를 해결해도 될 만큼이다. 그런데도 난 괜찮 다고 하신다. 이 거짓이 담긴 진심은 하나였 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길 바라지 않는 마음 이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기대 수명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 시간일 뿐이다. 나는 죽어져도 자녀들만큼은 행복하길 바라며, 짐이 아닌 기도의 능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모든 권사님의 마음이었다.

★ 김호영 목사(10선교구)

#### 동탄광림교회

### 직장인 일일기도회

광림수도원에서 직장 선교의 사명을 결단



습니다.

동적이었습니다.

동탄광림교회에는 '직장 속회'라는 이름의 특별한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직장에 다녀 평일에 속회를 드리 기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목사님과 전도사 님의 인도로 올해부터 새롭게 꾸려진 속회 모임입니다.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속회를 드리기가 어려웠는데, 직장 속회를 통하여 여러 성도들과 함께 친교하며 속회 예배를 드릴 수있는 이 시간이 매우 귀합니다. 잠깐이라도나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기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평일에는휴가를 내기 어려워 교구의 일일 기도회에가본 일이 없었습니다. 아쉬움은 많지만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직장인 일일기도회는 평일에 기도회에 가지 못해 너무 아쉬웠다는 한 성도님의 이 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일일기도회 한번 가볼까요?" 하는 전도사의 추진력으로 최대한 많은 인 원이 모일 수 있는 날짜를 정하게 되었고, 삼삼오오 카풀로 광림수도원 다락방 채플에 모여 일일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락방 채플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과 열두 기둥. 최후의 만찬 조각, 십자가까지. 모든 것이 은혜로웠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 하는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

예배 후에는 기도 동산에 올랐는데, 주님의 공생애 사역을 상징하는 조각물을 돌아보 고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속도

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무척 은혜롭고 감

또 샬롬하우스의 역사관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와 선교 사역에 대해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우 리 각자가 직장 선교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토요일이다 보니 각자 여러 사정으로 매주 마다 예배드리는 인원도 다르지만, 직장 속 회로 모이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 하셔서 동탄광림교회 부흥의 뿌리가 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속회가 되기를 소망하 며 기도합니다.

📩 안형준 전도사(동탄광림교회)

### 부활절 택시 전도데이

남선교회총연합회, 선물 전하며 부활의 기쁨 나눠



남선교회총연합회(회장 박기연 장로)는 부활절인 3월 31일(주일) 1~5부 예배 전후, 교회정문과 현대아파트 횡단보도 앞에서 〈택시전도데이〉 행사를 가졌다. 이는 성도들이교회에 올 때 자가용 대신 택시를 타고 오게하면서 기사에게 반가운 인사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내릴 때에는 거스름 돈을 받지 않음으로써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것이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빠른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택시기사를 비롯한 운전하는 분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택시 전도데이의 취지다. 이날만큼은 자가용 대신 택시를 이용하는 교인들이 많 아서 주차장이 억유로워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남선교회 임원들은 교인들을 태운 택시가들어오면 재빠르게 기사들에게 다가가 "반갑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등의 인사말을 전하며 준비한 빵과 계란, 생수 등 선물과전도지(광림의 강단)가 담긴 쇼핑백을 전해주었다. 또 택시를 탄 성도가 내리기 쉽게문을 열어 주기도 했다.

정기석 권사(남선교회 국내본부장)는 "행사

하루 전인 토요일 남선교회 임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5백 개의 선물 포장 작업을 했다. 택시 기사들과 대화를 해 보면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 교회를 잘 가지 못했는데 광림교회 행사를 통해 다시 교회를 나가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사람도 있고, 광림교회에서 부활주일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왔다고 하는 기사도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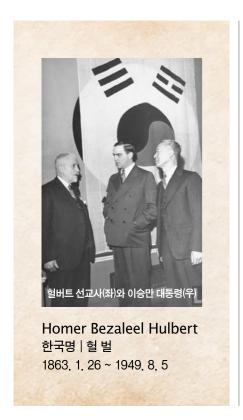
택시데이는 남선교회에서 새로운 전도 방법을 찾다가 2013년 부활절에 1회성 행사로 진행하였는데, 반응이 좋아 그 이후 일 년에 두 차례 부활절과 교회 창립 주일에 실시하고 있다.

박기연 장로는 "택시 기사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게 되면 그 효과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오래 지속되고 나아가 택시를 탄 승객들에게 기사들이 대신 전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택시뿐만 아니라 광림교회·현대고등학교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기사에게도 준비한 선물을 지급하고 있다. 수고하는 회원들과 후원해 주는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烤 이득섭 기자

한국감리교회를 빛낸 해외선교사 **20** 

###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한 호머 헐버트 선교사 - 2



헐버트 선교사가 1886년 여름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신분은 조선 최초의 국립 근대식학교인 육영공원의 교사였습니다.

그는 처음 1년여 동안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한 집에서 살았으며, 아펜젤러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과 교파를 초월하여 교류하며 선교사들 간의 소통을 도왔습니다. 또한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선교사들에게 진실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891년 조선 육영공원 운영이 어려워 지자 헐버트는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펜젤러는 미국 감리교회 본부에 헐버트를 조선 선교사로 추천하였고 1893년 10월 감리 교 선교사의 자격으로 다시 조선에 오게 되 었습니다.

이후 그의 선교 영역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배재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감리교 출판기관인 '삼문출판사'를 책임맡는 동시에 볼드윈 예배소(현 동대문교회)

를 책임 맡았습니다. 이승만, 주시경, 서재필 등이 헐버트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교육자이자 선교사로서 조선 근대교육의 기틀을 다졌으며, 한글 대중화를 위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지리와 사회문화에 대해 가르치고 교과서를 만들며 조선 사람들의 세계관을 넓혀주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를 위해, 교육, 사회활동, 문화운동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선교 방법을 '통전적 선교'라고 합니다.

그의 선교의 영향으로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탄생했으며, 그의 한국에 대한 사랑은한국 독립운동의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서부터 1945년 광복을 맞을 때까지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외교 및 대화 창구 역할을 했으며, 1903년부터는 타임즈의 객원 특파원으로 1904년에는 AP 통신의 객원 특파원으로 러일전쟁을취재하기도 했습니다. 1907년 헤이그 밀사파견을 돕고 자신 또한 특사가 되어 직접 헤

이그로 가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일 본이 알고 방해해 헤이그 특사들은 회의장에 입장조차 못하고 특사 파견은 실패로 끝났습 니다. 이를 빌미로 헐버트는 대한 제국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미국에서 서재필, 이승만 등의 미주 독립운동가들을 적극 지원하였습 니다. 그는 기독교적 정의와 인간애를 삶으 로 실천한 사람이며, 무엇보다 한국 독립의 숨은 영웅이었습니다.

📩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 천국 소망의 마음을 나누는 경조위원회 - 송형호 권사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담임목사님의 전생애, 전인적 목회 방침에 따라 기독교의 선진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광림교회의 경조위원회에서 10년 넘게 봉사하고 있는 송형호 권사(8교구)는 성도들의 슬픈 일과기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도움을 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 기도를 드린다. 경조위원회는 물론이고 20년 넘게 섬겨온 기드온선교회의 봉사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노력하는 송형호 권사를 만났다.

#### 경조위원회를 섬기게 된 계기는?

2007년 가을, 집사람과 경춘 가도를 드라 이브하고 돌아오면서 비전랜드, 수도원 등 광림교회 시설을 일일이 답사했어요. 그때 감람동산을 둘러보면서 고(故) 김선독 감

독님의 목회철학과 비전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25일 집사람이 소천해 예비해두신 감람동산에 고인을 모시게 됐고, 경조위원회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감람동산은 광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천국으로 가기 전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곳이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곳이기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경조위원회의 한 일원 으로 힘이 닿는 데까지 역량껏 헌신하고 싶습니다.

#### 경조위원회를 섬기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감람동산 리모델링 계획을 잡고 있을 때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며 순적하게 공

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했던 순간 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계절 상황에 맞게 공간을 계획하고, 그 동안의 불편함을 개선하며, 유족들이 언 제나 와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 간으로 만들기 위해 답사도 다니고 의논도 많이 했습니다.

개천 확대 공사와 함께 펌프시설을 설치해 사계절 물이 흐르도록 만들었고, 흰 조약 돌로 이루어진 산골장과 주차장, 유족 편 의 시설을 개선했으며, 고인의 명패를 디지 털로 새롭게 바꾸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죠. 팬데믹 이후 못하게 됐지만 발인 예배 때 찬양으로 고인을 천국 길로 환송하던 조 가 찬양단 활동도 기억에 남습니다.

#### 봉사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다가 훗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천국을 가는데, 주님 편에서 영면을 취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감람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림교회 교인으로서 이렇게 훌륭한 안식처가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하고,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돼요. 감람동산 주변을 아름답고 은혜로운 곳으로 가꾸기 위해 헌신하고, 이곳을 다녀가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은혜받고갈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 광림교회 교우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 가 있다면?

광림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서도 감람동산을 모르거나 안 가본 분들이 많습니다. 감람동산을 직접 가보면 천국 가는 길에 슬픔보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예비해놓은 안식처가 있구나 안심할 수 있고, 안 믿는 분들 전도하고 권면하기에도 좋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핑계 대고 감람동산을 구경시 켜 주는데, 다들 감탄하고 돌아간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편 84편 10~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성도님들 에게 감람동산과 경조위원회가 하는 일에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 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 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 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 84:10~12)

\*문의 : 조항장 권사 (010-5218-4453)

🙏 한혜선 기자





##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이야기 47







#### 사도 베드로의 능력과 기적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 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 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 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 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행 9:40~42)

기독교 복음은 놀랍도록 번성(蕃盛)했다. 사 도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서 가르치고 전도하였다. 성령이 그들 과 함께 있어서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이제 복음은 팔레스타인(Palestine, 현재 이스라 엘과 팔레스타인이 있는 지중해 동안 지역으 로, 고대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있었 던 지역, 히브리어로 '플레셰') 전역으로 퍼져 서 사도들은 매우 바빴다.

베드로가 모든 교회를 방문하는 사명을 가 지고 길을 떠났다. 예루살렘 교회 외에 다 른 지역을 순회하며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 다. 베드로는 여러 지역에서 전도하고 가르치 다가 룻다에 도착했다. 이곳에도 기독교인들 이 여럿 있었는데, 이미 베드로가 앉은뱅이 를 일으킨 기적과 그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 이 나았다는 소문이 나 많은 사람이 베드로 에게 몰려왔다.

룻다의 성도들은 먼저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

쳐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몸이 마비되어 팔 년째 병상에 누워만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제자들이 할 일이자 주님의 뜻이었다.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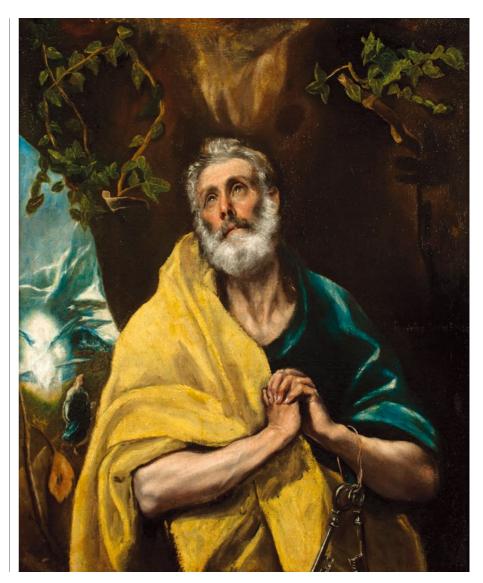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 신다. 어서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여라."

그러자 애니아는 즉시 몸을 일으켰다. 이 놀 라운 기적은 룻다에 퍼져 더욱더 많은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룻다에서 북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 욥바에 도 '룻다의 기적'은 전해졌다. 욥바에는 다비 다라는 제자가 있었다. 다비다는 예수의 말 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여인으로, 그녀의 선 행과 구제는 잘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베드 로가 룻다에 있는 동안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었다. 게다가 이미 장례를 치르려고 시신 을 안치한 상황이었다.

어느 날, 욥바에서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 와 그들이 있는 곳으로 와주기를 요청하였 다. 베드로는 즉시 그들과 함께 욥바에 갔다. 베드로는 곧 다비다의 시신을 안치한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에는 평소 다비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가난한 과부들이 슬프게 울고 있었다. 그들은 다비다가 살아 있을 때 만들 어 준 옷가지들을 베드로에게 보여 주며 안 타까워했다. 베드로는 과부들을 방에서 내보 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사실 베드로는 죽은 사람을 살린 경험이 없





▲ **사도 베드로**\_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부 른 첫 번째 제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열두 제자 중에 서 으뜸으로 손꼽힌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이후 교 회 공동체를 구성하여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앞 장섰다. 엘 그레코의 작품.

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나사로 를 살려 낸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친 그였다. 베드로는 전능하신 주님께 이 여인을 살려 달라고 간구하였다.

그리고 시신에 대고 명령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는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고는 믿는 성도들과 과부들을 방으로 불러들여 살아난 다비다를 보여 주 었다. 그들은 매우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죽은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의 능력과 '욥바 의 기적'은 순식간에 널리 퍼졌고, 그만큼 예 수를 믿는 사람은 더욱 증가하였다.

◀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베드로\_ 병에 걸려 죽은 다비다를 위해 베드로가 기도하고 '일어나라'라고 명하자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장면이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온갖 병자들을 살 리며 복음을 전하였다. 마사초의 작품.

\*문의: 빛의 숲 서점(02-2056-5771)

